

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47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2월 2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정면으로 맞선다

## 정규직 노동자는 '사회 암적 존재'?

작년부터 노동계에 대한 적대심을 서서히 드러내던 박근혜 정권이 드디어 전쟁을 선포했다. 소위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내용들로 가득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 결국 정규직 노동자를 '사회 암적 존재' 로 만들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 물러서지 않고 투쟁한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는 '절박하다! 단 한번의 승리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조합원들의 뜻이 정권에 당당히 맞서 투쟁할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그만큼 이번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의지는 확고하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9일 첫 회의에서 4월 선제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지역본부, 산별 대표자들은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뜻을 모았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을 완전 개악할 내용들로 가득하고 연금 개악,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노동자 죽이기가 노골화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고, 주요 지지층이었던 50~60대의 지지율과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미 재벌만 살찌우고 서민등골 빨아먹는 정권에 많은 사람들이 뿔난 상태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 은 '노동자 학살 대책' 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 극에 달할 것이다. 성난 민중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투쟁이 절박하다.

## 우리 의지대로 공세적으로 싸운다!

그동안 노동법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대부분 국회 일정에 휩쓸렸다. 국회 일정에 맞춰 투쟁을 하다보니 우리의 계획대로 투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앞에서 1회성 집회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투쟁은 전혀 다른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회 일정따라 상징적으로 하루 파업하고 마는 투쟁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힘있는 총파업 투쟁을 만들기 위해 4월 선제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벌써 투쟁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권과의 정면승부가 이 땅 노동자들의 목숨을 결정할 것이다.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총파업으로!

# 콘티넨탈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거 개입 의혹

콘티넨탈에서는 지금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이다. 당연히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선관위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안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사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속노조 교섭위원들이 선관위원 중 한 명이 노사협력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따라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선관위원이 노사협력팀 부장과 선거관리 공고 내용을 상의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따져묻는 금속노조 간부에게 선관위원은 “오타를 찾기 위해서 방문했다.” 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기만 했다. 공고내용은 이미 선관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아무리 금속노조가 미워도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노사협의회마저도 어용으로 만드려는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조 파괴를 하면서 불법을 수도없이 저질렀지만 마지막까지 너무 지지분한 콘티넨탈 자본이 안타깝다.



## 이번 설 선물은 영동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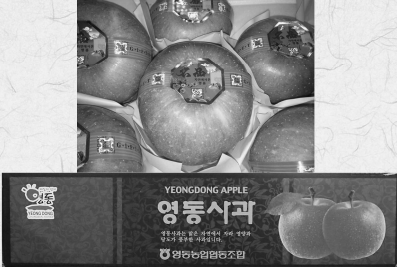


이번 설 선물은  
유성영동지회  
조합원이  
직접 재배한!

# 영동 사과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조합원이 직접 재배한 영동사과!  
맛과 품질 보장합니다!

**제수용 사과**



5kg (13~ 16과)  
**판매가 30,000원**

**먹거리용 사과**



10kg (33~ 39과)  
**판매가 35,000원**

※ 주문은 사업장 단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 노조 사무실로 배송합니다.(주문시 사업장 주소 필히 말씀바랍니다)  
문의 / 주문 : 010-8821-0323 (김선혁)  
제작 : 국민 7111-02-96-104850 옥영수  
주문 : 2월 15일까지  
배송 : 2월 17일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 공장철수로 대법원 협박하는 발레오 자본

발레오 자본이 발레오전장 기업노조 설립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패소가 예상되자 한국 경주공장 청산을 암시하며 대법원과 금속노조를 위협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발레오그룹 회장은 “어떠한 노사관계의 악화도 발레오 경주 공장의 현 위치와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속노조와 발레오 노조 간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이어 금속노조 손을 다시 들어주면 한국 공장을 청산하겠다는 협박으로 볼 수 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 지회 비상대책위원은 “문제는 발레오전장 회사다. 노조파괴에 대한 반성과 사과논커녕 노동자를 볼모로 청산 협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경제> 같은 언론이 이 같은 행태에 동조해 일이 있을 때마다 청산 위기라고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발레오 경주공장 청산 시 상하이 발레오 공장으로 생산 물량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발레오 회장은 다국적기업의 지속경영 의무를 저버리고 ILO 삼자선언이나 OECD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발레오가 공장 청산을 무기로 한국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발레오 자본 경주공장인 발레오전장은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고 금속노조를 파괴하고 기업노조를 세웠다. 발레오전장은 노동자들에게 소위 ‘한강철교’, ‘오리걸음’ 등 고문에 가까운 반인권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회의 지탄을 받은 문제 회사다.

금속노조는 발레오전장 회사 주도로 실시한 금속노조 탈퇴총회는 원천무효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년 7월 총회 무효를 판결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2012년 9월 탈퇴총회가 무효임을 판결했다.



##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iswcool@naver.com



<1.29 보쉬전장지회 아침 출투>



<1.29 보쉬전장지회 아침 출투>



<1.29 보쉬전장지회 아침 출투>